

“내 안에 머물러라”(요한 15,4)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참된 것’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여 참된 것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참된 것인지 식별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거짓된 것이 오히려 더 참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제생활을 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에 과일로 꿀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절로 군침이 돌게 만드는 먹음직스러운 꿀이었습니니다.
 저는 꿀의 달콤한 맛을 기대하며 한입 가득 베어 물었는데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시어도 너~~~무 시었습니다. 정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에 오른 꿀이나 과일을 볼 때면 저는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맛이 나는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달콤한 포도를 맺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처럼 가짜가 기승을 부렸나 봅니다.
 사실 거짓된 것일수록 자신을 감추기 위해 더욱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법입니다.
 물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현혹되어 ‘정 주고, 마음 주고, 내 모든 걸 줬지만, 결국 남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화려함에 매번 속기도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그곳에 맺히는 포도 열매에
 만 집착하여 그 맛이 어떤지는 살피지 않고, 그럴싸한 포도 열매를 맺는 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제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포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과 그럴싸한 신앙인의 옷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겉모습이 참으로 고풍스럽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엉뚱한 나무에 붙어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 포도 열매처럼 보인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잘려 나갈지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신맛을 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한 채, 단맛을 내는 포도보다 더 탐스러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는 데 정신을 팔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곳에 매달려
 우리 스스로 포도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제대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가브리엘 신부 | 교구 사목국 부국장



제 1 독 서 사도 9,26-31
 화 답 송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제 2 독 서 1요한 3,18-24
 복 음 요한 15,1-8

주일 진레

더 좋은 가정생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첫째,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나중에는 또 다른 가정을 꾸려 가족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누리다가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가정은 아이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인 엄마, 아빠, 형제라는 ‘너’를 처음 발견하여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을 키워 간다. 가족들의 미소와 웃음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가족들의 다툼과 불화로는 고통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가정생활 분위기에 따라 자녀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좌우된다.

둘째, 가정생활의 주역은 부모

부부는 한평생 동반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사랑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서 “나는 당신을 남편과 아내로 맞아들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성하거나 아프거나 일생 신의信義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공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신자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 순교殉敎하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순직殉職하듯이 부부는 배우자를 위하고, 자식과 부모를 위하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부모 역할

레바논Lebanon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 1883~1931)은 ‘예언자豫言者’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은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니다. 부모들은 활, 아이들은 화살, 그리하여 사수射手이신 하느님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 것이다. 부모 그대들은 사수이신 하느님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또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원하지 않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게 하거나, 부모가 골라준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성적이 안 좋다고 나무라기만 해서 되겠는가?

부모는 고유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자녀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양육養育하는 것이지, 자녀를 부모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콜로 3,21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들볶지도 말고, 자녀들의 기를 꺾지 말라고 당부했다.

넷째, 부모 공경

집회 3,3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고,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고, 그야말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늙고 병들 때일수록 조건 없이 잘해드리면서 자식 노릇을 잘해야 한다.

더 좋은 가정생활을 하여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 성월의 첫 번째 주일인 5월 2일은 한국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한 생명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제10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책임 있게 기르도록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와 법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낙태 찬성과 반대 여론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해졌고 입법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현실에 깊이 우려하며,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오늘날 많은 이가 인간 생명에 대한 공격을 시민의 권리로 국가가 인정해 달라는 법적 정당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헌법 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2.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가 나서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헌법 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긴 채 국회에서 방치됨으로써, 지난해 말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들은 현대 문화의 특징인 윤리적 상대주의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과 제도는 대부분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리, 절충과 합의에 근거를 둡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대의 징표’로 보아야”(백주년, 46항) 하지만, 민주주의를 이상화하여 도덕성의 대체물이나 비도덕성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도덕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동원하는 수단의 도덕성과도 긴밀히 결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약하고 보호 능력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하여 폭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생명의 복음, 70항 참조)

4. 국가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나약하고 무고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법으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낙태를 승인하는 법은 개인의 고유한 생명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동선을 거스르므로, 진정한 법적 효력을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임부와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사회 문화 개선과 사회 복지 지원 등을 위한 입법이나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향후 개정 보완된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그 법에 협력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심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거스르는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비록 국법이 허용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배치되는 행위에 명시적으로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해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 불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는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나 보건 종사자들, 병원, 진료소, 요양 시설의 운영자들에게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들의 상담, 준비, 실행 단계에 참여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74항) 관련 법령의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리라 기대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 양심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위협에 저항하고, 일치된 기도와 생명 교육,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임신한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동반해야 하며, 이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임부들과 새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

교회의 창문을 다시 열며!- 그리스도교는 관계이며, 배려이며, 기쁨입니다!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사진 출처: <https://www.vaticannews.va/>

지난 4월 18일 부활 제3주일 성 베드로 광장에 접해있는 교황님의 집무실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단기를 반복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창을 다시 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를 공식 선포하면서, 교황 요한 23세께서 하신 말씀 “교회의 창문을 열어 세상의 신선한 공기를 들입시다!”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창문을 열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부활 삼종기도’를 바치시고, “그리스도교는 교리나 윤리적 이상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교황께서는 루카 복음 24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평화의 인사’에 대해 묵상하신 것을 나누셨습니다. 교황께서는 24장을 언급하시면서 세 가지 특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보았고, 만졌고, 먹었습니다!” 이 세 특성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황께서는 “나의 손과 발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본다는 것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은 사랑의 동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들의 아이를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세심하게 봅니다... 본다는 것은 무관심에 대항하고, 이웃의 곤경과 고통을 외면하려는 유혹에 대항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만진다는 것 역시 사랑의 동사임을 교황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사랑은 삶의 친밀함과 관계 맺음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교황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만지도록 초대하신 것은 그분이 단순히 혼령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며, 예수 당신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분과 우리 형제자매들이 맺는 ‘거리감 없고, 동떨어진 시선으로 보는 것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이를 바라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혔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그를 자신의 등에 업어, 여관에 데려주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예수님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기와 지각할 수 있는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교황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곤궁 가운데서 인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하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또한 사랑과 친교와 축복의 표현이 됩니다.” “복음에서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이 유쾌한 어울림을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뚜렷하고도 거룩한 표징”임을 강조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은 그저 떠도는 ‘혼령’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인격’이심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리나 윤리적 이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며, 예수님에 의해 양육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만지고, 양육함으로써 피어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는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삼종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이 광장이 그립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유럽 <교회 일치 헌장>(Charta Oecumenica) 반포 20주년

4월 22일은 지난 2001년 유럽 천주교 주교회의(CCEE)와 유럽 기독교 교회 협의회(CEC)가 유럽 교회의 일치 운동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합의한 <교회 일치 헌장> 반포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헌장>은 교회의 교의와 법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두 교회 단체의 자발적인 일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기념일을 맞이하여, 양측의 수장, 곧 유럽 주교회의의 안젤로 바그나스코 추기경과, 유럽 교회 협의회의 그리스티안 크리거 목사는 “다채로운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한 경험과 성과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교회 차원뿐 아니라, 신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상호 신앙 교류는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으며,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노력에 더욱 이바지”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일치 헌장>의 메시지는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활력”을 주었음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사회가 인간 죄와 분열에 도전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 교회와 신교회의 분열로 야기된 사회적이고 경제적 불평등은 치유되어야 하며, 그것은 교회 일치의 자세와 구조를 통한 변화를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새로운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적인 갈등과 테러 공격은 회개와 용서와 정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럽 교회들은 “일치의 정신을 더욱 확인하고,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로 드러내는 데 동참”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이 세상에서 지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포 서한의 마지막에 “공동의 기도와 행동을 통한”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교회 일치 헌장>은 2001년 4월 22일 밀로스로브 블크 추기경과 예레미아 총대주교의 서명으로 24개 국어로 번역되어 반포되었습니다. 헌장은 12개의 항목을 통해 유럽의 일치와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12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의 공동 선포, 일치에 대한 공동 응답, 공동의 연대와 협력, 공동의 기도, 지속적인 대화, 인간과 문화의 화해, 유럽 통합 협력, 창조 보존 노력, 유대교와의 깊은 친교, 이슬람교와 타 종교 간의 관계 증진, 세상과의 대화 증진.



교회 일치 공동체인 테제의 교회
사진 출처: <https://www.vaticannews.va/>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이재철(아드리아노) 신부
2006년 5월 3일

교구/본당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5월 9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취소 및 연수 책자 신청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에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를 취소합니다. 연수 책자만 신청받습니다.

내용: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교안 보급
주제: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책자비: 7천 원

신청: 5월 16일(주일)까지

※ 마감 이후 신청 불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청년 교리연수 안내

청년 교리연수를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5월 22일(토) 13:00~18:00/

5월 23일(주일) 13:00~16:30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대상: 청년, 선착순 15명 마감

준비물: ‘ZOOM’이 가능한 장비(스마트폰, 태블릿 PC, PC 등), 필기구

참여방법: ‘ZOOM’ 프로그램 접속(연수 당일 ‘ZOOM’ 주소 문자 안내)

참여조건: ·2일의 시간 동안 ‘ZOOM’에 접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데 방해받지 않는 공간
·다른 일정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연수에 참여하려는 의지

신청: 5월 16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기타

성골로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5월 9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성 마리아 재속회 성소모임

시간 및 장소: 전화상담 후

대상: 재속회에 관심 있으신 미혼여성
(제3회와는 다름)

문의: 010·9437·5903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5월 16일~19일(추)/ 5월 22일~24일/ 5월 28일
~30일/ 6월 7일~10일(추)/ 6월 13일~16일(추)/
6월 19일~21일/ 7월 23일~25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피정

일시: 5월 23일(주일) 10:00~17:00

장소: 부산가톨릭신학대학

대상: 35세 미만 여성/ 회비: 5천 원

문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010·9610·5366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제주성자순례 3일/ 4일 5. 17.(월)~20.(목)/ 5. 31.(월)~6. 2.(수) 6. 4.(금)~6. 6.(주일)/ 6. 7.(월)~6. 9.(수) ■ 한국성지 167 완주 5. 24.(월)~5. 27.(목) 인천·의정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진주 함 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앙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	---	---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성지순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찾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신앙생활의 위축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하고 다짐하는 신앙 새신의 기회를 갖고자 교구 내 순례지를 선정하여 성지순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순례를 완주하신 순례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보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기간:** 5월 2일(주일)~11월 27일(토)-희년 폐막일

▶ **전대사 수여 200주년 희년 순례지**

- 복자 신석복 마르코(명례성지)
- 복자 윤봉문 요셉성지
- 거제 옥포성당

▶ **순교복자 성지 및 묘지**

- 복자 박대식 빅토리오 묘(확인 도장은 진례성당에 있음)
- 복자 구한선 타대오(대산성당)
- 복자 정찬문 안토니오 묘(사봉공소)
- 순교자의 딸 유섬이 묘(확인 도장은 묘지 입구에 있음)

▶ **순례참여:** 순례지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도문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과 주모경을 바칩니다.

※순례 확인증은 각 성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순례지 모두 확인 도장이 찍혀야 성지순례 완주자로 인정합니다.

▶ **접수처:** 우편-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27 천주교 마산교구청 평신도협의회

Email- clacms@hanmail.net FAX- 055·249·7093

SNS- 010·6677·6675(시복시성분과 정승한 예로니모)

※ 보내실 때는 반드시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구약성경과 작은 신들

고대근동의 '작은' 신들을 알면, 또 다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

성경에 '작은' 신들이 나오나?

엄마신, 삼촌신, 입의 신, 불의 신, 이슬신, 번개신, 풍우신, 태양신, 곡식의 신, 샘의 신, 열병의 신, 죽음의 신, 밤의 신, 커룹과 용...

정말 구약성경에 이런 신들이 나온다는 말인가? 가나안 신으로 유명한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은 나오지만, 이런 잡다한 신들이 도대체 어디 나오지?

고대근동학을 전공한 주원준 박사는 구약성경의 여러 단어를 헤집어 그 밑에 깔려 있는 고대근동의 삶과 신앙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근동 세계에서 가장 늦게 등장한 민족에 속한다. 약소국이었던 그들은 이미 두텁게 자리 잡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나톨리아,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짊어 받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고대근동 종교 문화를 받아들여 야훼 하느님을 믿는 자기네 신앙을 표현할 때, 과감하게 그것들 안에 깃든 신성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주 하느님의 피조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얼른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표현 속에 희미한 흔적만 남긴 다양한 신의 모습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출판: 성서와함께

•지은이: 주원준

•발행일: 2021년 3월 25일

정복당할 수 없는 희망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말은 어렸을 적 큰 잘못을 저지른 후 잔뜩 겁먹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떡하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벌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터져 나온 저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게 무의식 깊이 스며들어 저의 마음과 정신, 영혼,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파고들며 온 존재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는지 수도생활을 하면서 점차 그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쇄 울타리 안에서의 공동생활은 막다른 길이라는, 도망갈 곳, 피해 갈 곳 없는 사면초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탁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합니다. 마치 흙 도가니 속에서 순은이 정련되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이 자기 인식의 과정은 무의식 깊숙이 억압되었던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이성에게 작용하여 자신에게 하나의 행동지침 즉 명령을 내렸으며, 그 명령을 의지는 어떻게 충실히 실행하였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하나의 관성적 습관으로, 관성적 습관이 신념과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던 한 꼬마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절망적인 외침,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가련한 부르짖음을 당신 마음에 새기신 주님께서는, 꼬마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당신 장막으로 데려다 놓으시곤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새생명으로 완전히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심으로써(골로 2,14) 당신 아드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고 계심에 끝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새생명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살과 피로 날마다 좋은 날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니, 거저 받은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대로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림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사부 성 베네딕도께서는 수도생활과 신앙에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 넓어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미로써 하느님의 계명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의 자기 인식의 복된 희망을 북돋우며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인식-하느님 관상’의 이 복된 여정을 인내로 이 계속하노라면,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열매를 맺는 가지인 우리 모두를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꼭 그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